



UA: 272/17 INDEX: AMR 36/7598/2017 HAITI



## 사니에스 프티 팻 SANIÈCE PETIT PHAT

여성인권 옹호자, 살해 위협에 시달리다

### DATE

2017.12.03

### TO

#### 아이티 법무치안부장관

#### Minister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

Maître Heidi Fortuné

Ministre de la Justice et de la Sécurité  
Publique

18, Avenue Charles Summer

Port-au-Prince, Haiti

Email: secretariat.mjsp@yahoo.com

Salutation: Dear Minister/ Monsieur le

Ministre

#### 아이티 경찰총장

#### General Director of National Police

Michel-Ange Gédeon

Directeur Général de la PNH

Police Nationale d'Haiti

20, Angle des rues Darguin et Gregoire

Pétion-Ville, Ouest, Haiti

Email: policenationalehaiti@gmail.com

Twitter: @DG\_PNH

Salutation: Dear Director General/

Monsieur le Directeur Général

#### 아이티 영부인

#### First Lady of Haiti

Madame Martine Moïse

Email: martine@jovenelmoise.ht

Twitter: @martinejmoise

2018년 1월 24일 이전까지 다음의 주소로  
탄원편지를 작성하세요.

또한 해당 국가의 공사관에도 탄원편지 사본을  
전달하세요.

아이티의 여성인권 옹호자 사니에스 프티 팻이 아이티 카나안  
지역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옹호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사니에스 프티 팻은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외곽 카나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인권단체  
'행동하는 여성운동(MOFALAK)'의 대표다. 광활한 대지였던 카나안 지역은 지난 2010년 대지진으로  
수도 대부분이 파괴되면서 새로운 주거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2016년 7월, 사니에스 프티 팻은 한 이웃 주민으로부터 그녀와 가족들, 특히 어린 두 자녀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웃 주민은 아내에게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는데, MOFALAK이 자신의 범행을 당국에 신고할까  
두려워한 것이다. 사니에스 프티 팻은 이 남성이 해당 지역에서의 MOFALAK 활동에 위협을 느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2017년 10월 11일, 이 남성은 사니에스와 함께 살고 있는 조카 레이먼드 샤리테의 직장으로 찾아가,  
날카로운 흉기로 레이먼드를 공격했다. 레이먼드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상처를 치료했다. 레이먼드는  
자신을 공격한 범인이 사니에스가 그 가족과 함께 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니에스는 조카를 공격한 이웃 주민을 고발했고, 이 남성은 이후 10월 17일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10월 26일 크루와 데 부케 검찰청은 그를 석방했는데, 그 이유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사니에스는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것이 두려워, 온종일 숨어 지내거나 밤마다 이사를  
다니고 있다.

### 프랑스어 또는 모국어로 다음과 같이 탄원해주세요

- 사니에스 프티 팻과 MOFALAK 회원들에게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당사자들의 희망에 따라 즉시 이들에게 보호 조치를 제공하라고 아이티 정부에 촉구하세요.
- 레이먼드 샤리테 피습 사건과 사니에스 프티 팻을 향한 위협 및 살해 협박 행위, 가정폭력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세요.
- 카나안 지역에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여성과 같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인 단체 및 개인들에게는 더욱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요구하세요.
- 인권옹호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특히 1998년 유엔 인권옹호자선언에 따라 이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보복 우려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라고 아이티 정부에 촉구하세요.



UA: 272/17 INDEX: AMR 36/7598/2017 HAITI



## 사니에스 프티 팻 SANIÈCE PETIT PHAT

### 여성인권 옹호자, 살해 위협에 시달리다

#### DATE

2017.12.03

#### TO

##### 아이티 법무치안부장관

##### Minister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

Maître Heidi Fortuné

Ministre de la Justice et de la Sécurité  
Publique

18, Avenue Charles Summer

Port-au-Prince, Haiti

Email: secretariat.mjsp@yahoo.com

Salutation: Dear Minister/ Monsieur le

Ministre

##### 아이티 경찰총장

##### General Director of National Police

Michel-Ange Gédeon

Directeur Général de la PNH

Police Nationale d'Haïti

20, Angle des rues Darguin et Gregoire

Pétion-Ville, Ouest, Haïti

Email: policenationalehaiti@gmail.com

Twitter: @DG\_PNH

Salutation: Dear Director General/

Monsieur le Directeur Général

##### 아이티 영부인

##### First Lady of Haiti

Madame Martine Moïse

Email: martine@jovenelmoise.ht

Twitter: @martinejmoise

2018년 1월 24일 이전까지 다음의 주소로  
탄원편지를 작성하세요.

또한 해당 국가의 공사관에도 탄원편지 사본을  
전달하세요.

#### 배경 정보

아이티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여전히 충격적인 수준이지만 대부분 신고되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다. 성폭력 생존자들은 형사사법제도에 깊게 뿌리내린 관행으로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은 채 풀려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MOFALAK은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경제적 폭력'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당한 여성 생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MOFALAK은 여성인권 인식 제고 프로젝트를 벌이고, 아이티 사회에서 여성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7년 4월, 아이티 정부는 부부간간을 형사범죄로 인정하는 등 성폭력에 더욱 강경 대응하는 조항을 추가한 포괄적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7년 초, 국경없는의사회는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포르토프랑스의 성폭력 피해자 전문 병원에서 2015년 5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치료를 받은 성폭력 생존자들 중 77%가 25세 이하의 여성이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그 중에서 18세 이하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5%에 달해, 어린 나이의 여성들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아이티에서 인권옹호자들이 활동을 벌이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수 년 간 국제앰네스티는 변호사 등의 인권옹호자들이 피습을 당하거나 협박, 괴롭힘을 당한 무수한 사례를 기록해 왔다. 주로 이들의 인권 활동에 관련해 공격을 가한 것으로 추측되는 사건들이었다. 정부가 이러한 공격에 대해 신속하게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인권옹호자들이 두려움이나 보복의 우려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지도 않았다. 이는 미주인권위원회(IACHR)가 여러 차례 명명한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

2017년 3월, 인권옹호자 데이비드 보니파체(David Boniface)와 주더스 이세메(Juders Ysemé)가 그들의 동료 니사제 마르티르(Nissage Martyr)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자신들도 생명을 위협당할까 두려운 상황이라고 알려 왔고,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위해 긴급행동에 나섰다. 두 사람은 2007년부터 아이티 레이로와(les Irois)의 전임 시장에게 계속되는 살해 협박과 공격을 당했고 이 사실을 당국에 신고했지만, 정부는 사전에 예방 조치를 제공하라는 미주인권위원회의 2015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당시의 긴급행동과 관련해 아이티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mr36/6045/2017/en/>)

2007년, 사니에스 프티 팻은 도미니카공화국 국경지대 인근에서 강간 생존자 사바네트와 함께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살해 위협을 당했고, 국제앰네스티는 그녀를 위해 긴급행동에 나섰다.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mr36/005/2007/en/> 참조)